

보도시점 2026. 9. 14.(월) 11:00
2026. 9. 15.(화) 조간

배포 2026. 9. 14.(월) 06:00

농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도록 닭고기 할인 확대

- 정부·농협·업계가 함께 육계 납품단가 인하 및 소비 촉진 할인 행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며 닭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협·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유통업계 등과 손잡고 닭고기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최종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육계 납품단가 인하와 소비 촉진 할인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우선 정부는 약 4억 원을 투입하여 대·중형 마트 등 유통업체에 공급되는 육계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8~11호 통닭을 대상으로 마리당 1,000원 이상의 도매가격 인하를 지원해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중인 육계 납품단가 인하는 추석 성수기까지 소비자가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지속 운영한다.

또한 2억 1천만 원 규모의 닭고기자조금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소비 촉진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소비자가 가장 즐겨 찾는 10호 통닭을 대상으로 9월 11일(금)부터 추석 첫날인 9월 24일(목)까지 20% 이상의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할인 행사는 농협에서 자체 추진하는 반값 상차림 할인 행사와 함께 추진함에 따라 소비자 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9월 7일 주간 평균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kg당 5,67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현재 닭고기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9월 말까지 닭고기 공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부 지원에 농협·닭고기자조금 등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이 실제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원탁 044-201-2331
	축산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주준현 044-201-2338

